



드라마, 은혜와 죄의 경계에 서다

태초에 드라마가 있었느니라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는 거대한 드라마이다. 감독이자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무대로 삼으신다. 그 무대에 올릴 광대한 드라마를 위하여 궁창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소품을 꾸미신다. 무수히 많은 소품 가운데 해와 달, 지구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다. 하나님의 창조행위는 말씀을 통해 이뤄진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imagine) 것을 말씀하시며 그대로 이뤄진 것이다. 결과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틈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했던 타락천사가 영과 육의 존재인 사람을 유혹하였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지만 철저히 육의 존재로 변질되어버린 인간을 두고 볼 수만은 없으셨다. 자칫 인간의 드라마는 전적으로 비극(tragedy)에 떨어질 뻔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본래의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성자 하나님을 보내기로 하셨다. 그 길은 영광에서 고난으로, 부요에서 가난으로, 존귀에서 치욕으로 내려가는 길이였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신학자 발타자(Hans Urs von Balthasar)는 이를 신적 드라마(Theodrama, Divine Drama)라고 이름붙였다. 이 신적 드라마가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 드라마에 한 등장인물이 되어 무대에 오를 때 구원과 회복이 시작되게 된다. 자이중심적인 에고 드라마(ego-drama)는 테오드라마(theo-drama)를 만날 때 진정한 삶으로 완성되어간다.

신적 드라마에서 인간의 드라마로

무(無)의 블랙홀에 빨려들어가 아무런 존재를 느끼지 못할 뻔했던 인간이 의미



32_worldview





의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에 드라마의 원형이 있다. 드라마를 기독교의 원형적(archetype) 관점에서 이해하자면 창조의 모방이요, 회복을 전제로 한 비극의 구속 행위가 된다. 기독교는 이 원형드라마를 통해 인간의 삶을 죄에서 구원으로 끌어올리고 승화시키는 과정이다. 반면 그리스적 예술관은 철저하게 비극론과 숙명론에 머물러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연극을 통해 카타르시스(catharsis)를 체험하므로 삶을 정화(淨化)시킨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 지평은 여전히 땅에 속해있다. 육으로 육을 정화한다고 기록해질 수 없는 이유에서다. 성령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죄의 본성만 더욱 교묘하게 치장될 뿐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롬 8:6)

인간의 드라마는 때로는 장엄미와 엄숙미, 우아미 등으로 고양되기도 했지만 결국 인간적 수준을 뛰어넘지 못했다. 장대한 어떤 드라마보다 더 역동적으로 요동쳐 온 인간의 역사가 스스로 기록해 지지 못한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인간의 드라마가 사람들을 눈물짓게 하고, 웃게 하고 감동을 선사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몸짓이다. 은혜를 떠난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아우성이다. 인간은 비극이라는 함정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TV드라마는 양면적 속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긍정적인 것은 드라마가 사실주의를 내세우면서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현실의 거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시청자들은 화면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스토리, 상황을 통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기도 하며, 타인의 삶을 훑쳐보는 등 쾌감, 대리만족을 누릴 수 있었다. 이는 라디오-청취자 관계에 머물러 있던 시대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드라마는 삶의 여러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허구(fiction)를 진짜 현실로 보이게 만드는 연금술이다. 가상현실은 TV드라마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이미지로 옷입는다. 시청자들이 드라마에 몰입할수록 현실-허구의 관계는 모호해진다. 시청자들은 언젠가 자신의 진짜 현실보다 드라마의 허구적 현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드라마를 보다가 울고 웃는 감정이입은 정상적인 것일지라도 드라마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신경증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미 도가 넘은 반응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대의 드라마가 가지는 경향 중 하나는 거대담론을 거부하면서 점점 개인의 일상적 이야기에 환호한다는 사실이다. 시청자들은 전에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대변해줄 다른 이의 이야기를 찾기 시작한다. 남의 이야기를 부담없이 보면서

자신의 내면을 폭로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욕망이 개제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방송되는 드라마는 대부분 예고드라마이다.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현상은 새로운 가족이 형성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시청자들이 어떤 드라마를 집중적으로 놓치지 않고 보는 경우, 그들은 자신의 식구, 이웃보다는 드라마에서 만나는 배역에 자신을 투영하고, 하나의 가상 공동체를 만든다. 드라마를





시청자들의 몰입도는 시청자들이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욕망과 정비례한다. 드라마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통해 선택된 새 가족인 셈이다.

드라마에서 무슨 선한 것이?

현재 우리나라는 드라마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V매체에 방영되는 드라마는 그 종류도 셀 수 없이 많다. 아침드라마, 월화드라마, 수목드라마, 주말드라마 등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정규 방송에 막장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다행인 것은 창사 특별드라마, 설, 6·25, 추석 특별드라마 등은 가슴흔흔하고 인간미 깃든 소재를 택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드라마 소재는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한다. 가족이 등장하지 않는 드라마는 거의 없다. 하지만 누가 가족의 이미지를 생산하는가. 시청자들은 그 가족의 이미지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가.

지금 방영되는 드라마는 종종 선정성, 폭력성, '막장'이란 딱지가 붙어 윤리적 논란마저 끊이지 않는다. 드라마를 두고 많은 이들이 막장스타일이라 염려하고 있다. 심지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미화되고 조장되고 있는 상황은 심히 우려되는 수준이다. 오래 전 <옥탑방 고양이>(2003)라는 인기드라마에 속했다. 이 작품은 혼전 동거를 공공연히 조장한다는 의견을 불러 일으켰다. 최근에도 대중드라마의 그런 속성은 쉽게 정화되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방영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선정적 소재들이 얼마나 많이 편재되어있는지 알 수 있다.

MBC 드라마 <황금물고기>에는 장인과 사위가 한 여자를 두고 삼각관계에 빠진 상황이 그려지고, <주홍글씨>에는 주인공이 쉽게 낙태를 결정하고, 남편의 옛 애인과 갈등을 겪는다. SBS 드라마 <세자매>에는 남편의 첫사랑이 내연녀로 등장하여 복수심을 일으키게 하고, <나는 전설이다>는 주인공의 외로움을 극대화 시키려고 역시 남편의 애인이 등장하며, <여자는 몰라>에서도 남편이 외도한 뒤에 그 아내가 이혼을 하고 자아를 찾아 나선다는 줄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KBS 2TV 드라마에서도 이와 같은 소재는 경쟁적으로 영상화되었다. <바람불어 좋은 날>은 남편의 첫사랑이자 아이의 어머니 여인이 등장하고, <제빵왕 김탁구>는 두 명의 남자 주인공이 남편은 아내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아내는 남편 아닌 다른 남자에게서 얻은 아이로 등장하여 가정 해체의 막장을 보여준다. <결혼해 주세요>는 남편의 외도에 자아를 찾아 나서는 주부의 이야기를 그리는





데, 그 대상이 돈 많고 잘 생긴 연하남이었던 것이다.

그 외에도 <분홍립스틱>(2010)은 전처가 남편과 불륜녀에게 복수하는 소재이며, <인생은 아름다워>(2010)는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묘사하여 동성애 확대를 우려하는 여러 단체에서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 <욕망의 불꽃>은 등장인물들이 성공과 욕망을 위해 살인, 폭행, 낙태, 강간, 협박, 불륜을 서슴치 않고 저지르는 상황이 여과없이 그려졌다. 최근 체벌금지가 정치적인 논란이 되면서 시청자들에게 청소년드라마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정글피쉬 2> 역시 선정적 소재와 장면 등이 가족 단위 시청을 불편하게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몇몇 드라마에서 얼마나 많은 삶의 부정적인 면이 전면 배치되고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시청자들은 이제 웬만한 자극에는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가 보다. 그 상태는 거의 중독 수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드라마는 그만큼 상처입은 현대인들의 내적 트라우마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인정해줄 수 있지만, 반면 상처입은 영혼은 그만큼 상황을 어찌 하지 못해 발버둥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그만 현실과 가상의 혼란스런 몽환적 시뮬라시옹에서 탈출해야 할 때이다. 인간은 하루 빨리 이 인간적 드라마의 굴레를 떨쳐버리고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신적 드라마로 회귀해야 한다.

신적 드라마에 접맥되어야

사람이 울고 웃는 모습은 휴머니즘의 기본이다. 드라마는 이 휴머니즘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감정과 상태가 사람이 삶을 지탱할 수 있을 때 휴머니즘도 빛을 발하게 된다. 지금의 상황은 그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쳐 있다고 본다. 예고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스스로 빛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이다. 드라마들이 왜 점점 막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는가. 이는 분명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 10)를 증거하고 있다. 막장드라마를 생산하는 작가, 연출가, 배우, 기타 방송 관계자들이나 이를 소비하고 있는 시청자들이나 모두 세속적 상상력에 마취되어 있는 것이다.

생산하는 자들은 단지 이미지만을 팔아서 이득을 챙기려하고, 소비하는 자들은 그 이미지 속에 자신을 숨겨버리려는 도피행각은 아닐까.

우리 시대의 미디어를 꽉 채우고 있는 드라마, 월요일에서 주말까지 빠지지 않고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이 극예술이 파스한 인간미로 가득차기를 바란다. 드라마를 통해 형성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단지 이미지와 감정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았으면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 끝으로 이 시대의 드라마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영감을 받고, 거룩한 상상력으로 새로워지는 계기를 맞이하기를 기대해 본다.

글. 추태화(안양대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